

한-EU, FTA 내달 7일 협상 시작

농산물 경쟁력

낙농·육류·과일류 피해 크다

<탈지분유> <닭·돼지고기> <사과·포도>

EU(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 가격이 국내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이들 품목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우리나라와 EU는 5월 7일부터 FTA 체결을 위한 1차 본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협경제연구소가 23일 발표한 'EU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U산 육류와 낙농품은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커 관세가 철폐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EU산 돼지고기(냉동삼겹살)의 수입가격(관세철폐 가정 후 2003~2005년 평균가격)은 1kg당 3천548원으로 국산(7천782원)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산, 국내산 품목의 절반가에도 못 미쳐 관세 철폐 제외 등 농업보호 선결 과제로

EU는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삼겹살 소비량의 20%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냉동삼겹살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하고 있다.

EU산 돼지고기는 CAC(국가별비교우위·한 나라의 특정 수출품목이 다른 나라 시장에서 갖는 경쟁력 정도, 1 이상이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봄) 지수도 1.37로 자체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미국과 태국 등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근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EU산 닭고기류도 우려되는 품목으로 꼽힌다.

EU산 닭고기(냉동닭다리)의 수입가격은 2천71원(1kg 기준)으로, 국내산의 43%에 불과하다. 현재 EU산 냉동닭다리는 47%, 냉동닭날개는 9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EU산 낙농품의 CAC지수가 2.76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탈지분유의 경우 수입가격이 2천673원(1kg 기준)으로, 국내산의 30%를 겨우 웃돌고 있다.

EU산 사과·배·포도 등 신선 과일류의 수입가격도 국내산 대비 20~50%에 불과해 한-EU FTA 체결시 과일 가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신재근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EU가 다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때 상당수의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적 있다"며 "한-EU FTA협상에서 이 점을 분명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EU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지급에 대응해 상계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안전판 구축도 선결과제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주가 연일 최고치... 손쉬운 투자전략 어떻게?

"외국인·기관 따라가기도 괜찮아"

중소형주 중심 주목

24일 코스피지수가 전일대비 12.36포인트 상승한 1,556.71로 마감되는 등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전략을 놓고 고심하자 전문가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처럼 지수 상승세가 가파르면 서 향후 전망이나 종목 고르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 따라하기를 하거나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통해 장세의 유행을 엿보는 것이 투자전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김성복 연구원은 "주식투자의 기본인 펀더멘털 측면에서 매수할 주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개인들이 적용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그럴 때에는 차라리 주가 영향력이 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매패턴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전략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내부의 전문인력들을 이용한 외국인이나 기관의 분석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다 펀더멘털

이 부실하거나 재료로 인한 변동성이 높아지는 종목에 관심을 덜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은 최근 1주일간 외국인과 기관은 섬유·의복, 유통, 화학, 건설, 제약, 증권, 보험업종에서 동시에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처럼 양대 매수주체가 동시 순매수하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굿모닝한중권의 이선업 연구원은 "장세는 패턴을 형성하고 나면 상당기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형성된 패턴에 맞춰 제때 매매하지 않을 경우 시장을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만큼 시장의 관심과 유행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패션의 유행을 알기 위해서는 패션쇼나 시내 중심부의 여성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증권시장에서는 주간 펀드수익률을 보면 현재 유행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서 "최근 1주일 동향을 보면 유리운용의 '유리스몰뷰티주식'펀드 등 소형주 중심을 편입하는 펀드들의 시세가 좋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921개사 참가한 국제식품전 코트라(KOTRA) 주최 '2007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 Hotel)'이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된 가운데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서울국제식품전·식품기술전에는 921개사가 참가해 작년보다 35% 증가했으며 부스도 1천633개로 33%나 늘어나 규모 면에서 사상 최대다.

부동산개발업 등록해야 상가 분양

올 11월부터 연면적 2천㎡ 이상 오피스텔 등 건축물

11월부터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면적 2천㎡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지금만 등록 의무 규정이 없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사업할 수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사업과정에서 사기꾼 양·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건교부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달 공포한 뒤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그 동안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디벨로퍼 등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이 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연면적 2천㎡ 이상(또는 연간 5천㎡ 이상)의 상가·오피스텔·콘도미니엄 등 건축사업과 면적 3천㎡ 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의 토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 자본금, 임원·발전문인력의 변경 등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초고층 아파트 시대 현대산업, 활동에 35층 규모

광주시 동구에 35층(98m)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는 등 광주지역에도 초고층 아파트시대가 본격 열리고 있다.

24일 광주시 동구청은 "광주의 대표적 구도심인 화동 남산교회 주변 '화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심의가 최근 광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해당지역에 35층 아파트 11개동을 건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께 화동3구역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화동 인근이 부동산 조망이 양호한 35층의 탑상형 아파트촌으로 거듭나게 되며, 34평형(472세대)과 60평형(123세대) 등 총 1천301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불법보조금 통진 4천 과정금 196억 부과

올 1월 이동전화 불법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4개 통신업체에 총 1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75억원, KTF 58억원, LG텔레콤 47억원, KT 16억원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류지갑)는 23일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유럽생산 시대

슬로바키아 공장 준공...2010년까지 유럽시장 5% 점유

현대·기아차가 동유럽 현지에 생산기지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유럽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준공된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을 가동 첫해부터 흑자공장으로 만들고 현대차 체코공장을 더해 2010년 유럽 판매목표를 122만대까지 확대, 시장 점유율 5.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4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 북동쪽 질리나에서 정 회장과 정 의정선 기아차 사장,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 등 두나라 정·관·계인사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모터스 슬로바키아공장'(KMS) 준공 기념

식을 가졌다. 현대·기아차는 25일 체코 동북부 오스트라바 인근의 노소비체 지역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현대차 공장 착공식도 가질 예정이어서 이 공장까지 가동할 경우 최대 자동차 격전장인 유럽시장에서 연간 60만대의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또 아시아,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최대시장인 3개 대륙에서 생산 및 판매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경제블록화로 인한 통상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환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현지화 전략을 통해 판매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정 회장은 이날 기아차 공장 축사에서

"슬로바키아 공장 가동을 통해 기아차가 진정한 글로벌 경영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높은 생산성과 끊임없는 경영혁신으로 준공 첫해부터 이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10억유로가 투입된 슬로바키아 공장에서는 기아차의 유럽 전략모델인 씨드와 소형 SUV 등 연간 총 30만대(올해 15만대)가 만들어지며 현대 체코공장은 2009년부터 30의 세단과 왜건, 소형 미니밴 등 연간 30만대 생산체제를 갖는다.

지난해 71만대를 유럽에 수출한 현대·기아차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유럽 판매물량을 80만6천대(13.5%)로 늘리고 2010년에는 총 수출물량 122만대를 달성, 시장점유율을 5.3%(작년 3.3%)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연합뉴스

과자점·방앗간도 현금영수증 발급

연매출 2,400만원 이상업체 가맹점 가입 의무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이 기존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제조업 중 과자점, 방앗간, 양장점, 양화점 등으로 확대된다.

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로 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

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제조업종 중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과자점, 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이 추가됐다.

당초엔 음식·숙박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의사, 한의사, 학원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됐다.

다만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상, 행상인,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 등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로 한정하는 대신 기존 체육시설 외에 합기도장, 국산도장, 공수도장, 단학장, YMCA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올해부터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육을 받고 지출한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예식장·물수건업체까지 가격 담합행위 늘어

'대기업 뿐 아니라 예식장, 태권도장, 부동산중개업소, 물수건 업체까지...'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 등과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예식장이나 태권도장, 부동산중개업소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가격과 공급조건 등을 담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의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경기 회복이 늦어질수록 담합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군산 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들이 지난 2005년 11월 상호 협의를 통해 기본예식비와 사진·비디오촬영비, 드레스 대여료 등의 가격을 합의한 점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1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이어 작년 1월부터 한 업체가 사진촬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기로 하는 등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같은 해 5월 회동을 갖고 다시 기본예식비와 사진촬영비, 식대 등의 가격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심지어 결혼식 뿐 아니라 돌이나 고회연 등 여타 행사의 상차림 판매가격이나 계약금 금액, 화장·머리손질 서비스 금지 등의 세부적인 조건까지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24개 부동산중개업소들도 '상갈화'라는 단체를 만들어 부동산 매물정보를 회원간에만 교환하고 비회원 중개업소에 매물을 소개한 회원들 자체 제재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다.

광주광역시 인근 지역에 있는 10개 물수건 포장·공급업체(위생처리업)들도 공동출자해 한 업체를 인수한 뒤 이를 통해 확보한 신규거래처를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상호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단체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339만명 가입

작년 12월 개설된 국제성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339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성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손쉽게 조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든 이 홈페이지의 개설 첫 해 이용실적을 집계한 결과 가입자는 339만4천명이고 부양가족까지 합쳐 누계 접속건수는 1천100만4천건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입자수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2005년 기준)의 55.6% 수준이다.

국제성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수집하는데 드는 시간 등 기회비용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이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는 약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제성은 올해 연말정산 때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성형수술비와 보약값 등이 추가되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 증빙서류 수집 대상도 늘려 나갈 예정인 만큼 근로자들의 납세편의가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 화물부문 오상환 부사장 영입

아시아나항공은 화물부문 부사장에 오상환(54)씨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상환 선임 부사장은 고려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LG전자 호주 판매법인장, LG 필립스 대만법인의 LCD 부문 판매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영업본부 산하에 여객영업사업부와 화물영업사업부를 두고 운영해왔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화물 부문을 독립시켰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